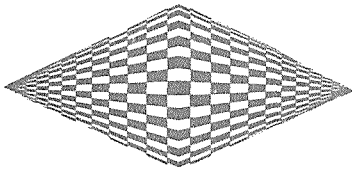


日本の 油價체계와 전망



—대한석유협회 조사과—

지난해 日本은 모든 석유제품의 수입을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제품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향후 제품수입의 확대에 따른 石油市場의 국제화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수입의 확대는 日本의 석유제품 공급(생산)구조에 다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어느 제품의 가격에 관하여 日本과 海外諸國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해외의 싼 제품이 곧장 日本에 수입되어 日本의 비싼 제품은 採算性的 상실로 생산이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현재 日本의 석유제품가격체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없을까, 있다면 어떤 가격체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최근 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가 「日本の 石油製品 가격에 관한 調査研究」에서 연구·검토하였다.

日本の 특이한 製品價格体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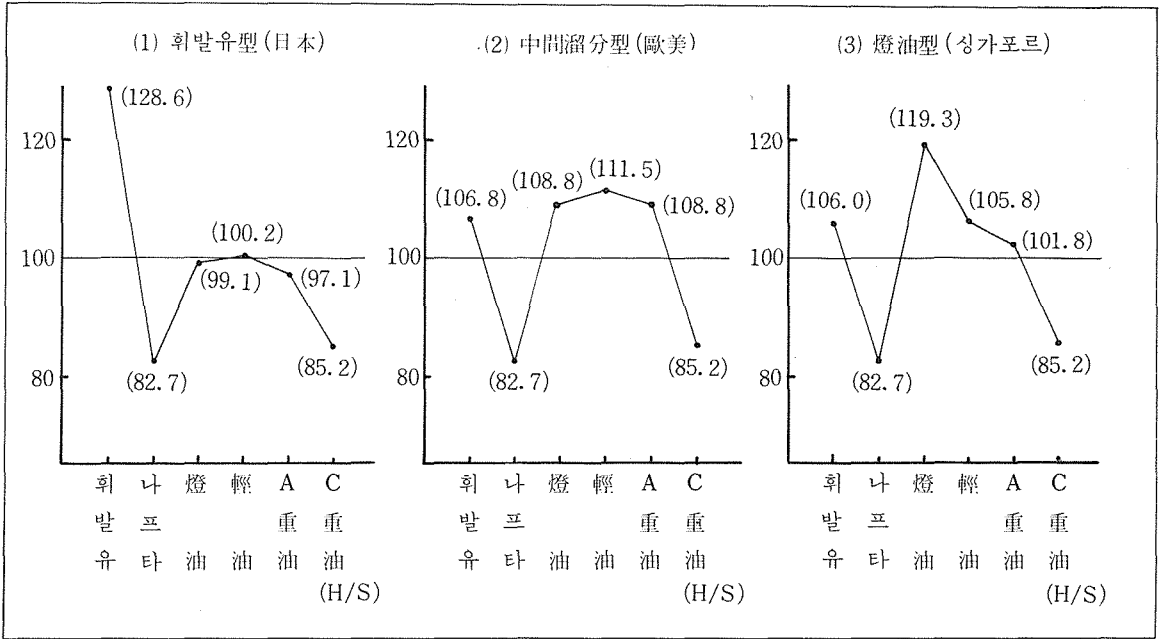
각국의 석유제품가격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수급 사정, 정책등에 따라 상이한 體系로 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역시 需給 즉 市場메커니즘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다.

日本の 戰後 40년간의 석유제품가격체계를 살펴보면, 1955년대에는 薪炭이나 石炭을 대신한 民生用 燈油의 왕성한 수요를 배경으로 燈油가격이 모든 油種가운데 제일 높았다. 이에 반해 휘발유는 공급과잉으로 격심한 가격경쟁이 빚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輕油가격을 하회한 적도 있었다.

1965년대에 이르자, 그때까지 燈油보다도 낮았던 휘발유가격이 1968년에는 석유제품중 가장 비싸게 되었으며, 燈油는 電氣, 가스, LPG등 경합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휘발유와 中間溜分간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아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激動期인 1975년대가 되자, 石油危機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價格介入에 따라 휘발유는 비싸고 中間溜分은 싼 현재 日本특유의 價格體系가 형성되었다. 석유회사는 코스트의 吸收를 휘발유의 수익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후 原油가격의 하락, 円高등 경제

〈그림-1〉 각국의 石油製品價格体系



註：1) 6個油種 平均=100
 2) 1985년도 精油工場 出荷價格(稅제외)
 3) 1985년도 베이스 케이스의 총매출액을 동일하게 한 價格体系

환경이 변화하였으나, 휘발유高價·燈油低價의 가격체계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海外諸國의 석유제품가격체계를 보면, 歐美諸國(프랑스, 西獨, 이탈리아, 英國, 美國)은 휘발유·中間溜分水平型(〈그림-1〉의 중간)으로 日本의 1965년대 가격체계와 동일하다. 또한 아시아의 代表格인 싱가포르는 燈油高型(〈그림-1〉의 右)으로 日本의 1955년대와 거의 같다. 이러한 비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日本의 석유제품가격체계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이한 것이다.

2000년의 각케이스별 供給量

日本 에너지經濟研究所는 日本의 전체 정유공장을 하나의 정유공장으로 모델化한 石油精製LP모델을 이용하여, 석유제품가격체계의 변화가 석유제품의 生産構造에 주는 영향에 대한 試算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尙來 日本의

석유제품수요나 정제설비체계를 想定하고, 3개의 제품 가격체계(휘발유·中間溜分水平型인 歐美型, 燈油獨高型인 싱가포르型, 휘발유高價·中間溜分低價인 日本型)에 대하여 각 體系下에서의 제품생산구조에 주는 영향(이익에서 본 生産인센티브)을 計測하였다.

〈表-1〉은 2000년의 각케이스별 供給量의 試算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베이스 케이스는 에너지 研究所가 想定한 2000년의 公需량(생산량 프러스 수입량)을 나타낸 것이며, 各油種의 合計公需량은 20,780만kl, 合計生産량 17,420만kl, 原油처리량은 20,240만kl(386만b/d)로 되어 있다.

日本型인 휘발유高價型에 있어서는 휘발유·경유에 대해서는 필요公需량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燈油는 生産되지 않아 수입량 200만kl만이 公需량으로 3,320만kl가 부족하다. 또한 A重油도 生産량이 1,383만kl로 필요公需량보다 417만kl가 부족하고, B重油와 C重油는 生産이 3,005만kl로 역시 675만kl가 부족하다. 各油種의 生産합

〈表 - 1〉 2000년의 각케이스의 供給量

(單位 : 1,000kℓ)

	油 種	기 본(1) 케 이 스	휘발유型(日本)		中間溜分型(歐美)		燈油型(싱가포르)	
			供 給	不 足	供 給	不 足	供 給	不 足
供 給 (生産+輸入)	휘 발 유	49,900	49,900	—	49,900	—	49,093	△ 807
	나 프 타(2)	20,100	20,100	—	20,100	—	20,100	—
	燈 油(3)	35,200	2,000	△33,200	35,200	—	35,200	—
	輕 油	36,100	36,100	—	36,100	—	36,100	—
	A 重 油	22,200	18,028	△ 4,172	22,200	—	22,200	—
	B·C 重 油	44,300	37,548	△ 6,752	44,300	—	44,300	—
	燃 料 油 計	207,800	163,676	△44,124	207,800	—	207,800	△ 807
生 産	휘 발 유	47,200	47,200	—	47,200	—	46,393	△ 807
	나 프 타(2)	3,892	1,295	△ 2,597	3,892	—	3,911	⊕ 19
	燈 油(3)	33,200	0	△33,200	33,200	—	33,200	—
	輕 油	35,100	35,100	—	35,100	—	35,100	—
	A 重 油	18,000	13,828	△ 4,172	18,000	—	18,000	—
	B·C 重 油	36,800	30,048	△ 6,752	36,800	—	36,800	—
	燃 料 油 計	174,192	127,471	△46,721	174,192	—	174,192	△ 788
處 理 量 (千B/D)		202,407	149,504	△52,903	202,407	—	201,419	△ 988
		(3,857)	(2,816)	(△1,042)	(3,858)	(—)	(3,839)	(△19)

註 : (1) 기본케이스 生産量은 모델計算値. (2) 나프타는 生産·輸入 자유. (3) 燈油는 제트油 포함.

계는 12,747만kℓ로 총4,672만kℓ가 부족하고, 공급합계는 16,367만kℓ로 4,412만kℓ가 부족하게 된다.

歐美型인 中間溜分型의 케이스에서는 휘발유高型의 공급량감소 경향이 완전히 해소되며, 전제품에 대하여 필요공급량을 충족시킨다. 原油처리량도 베이스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356만b/d이다.

한편 싱가포르型인 燈油型의 케이스에서는 휘발유의 相對價格이 저하하였기 때문에 휘발유의 생산량이 4,639만kℓ이며, 필요공급량에 비하여 81만kℓ가 부족하게 된다. 各油種의 생산량합계는 17,419만kℓ, 공급량은 20,780만kℓ이며, 이 때문에 原油처리량은 384만b/d로 베이스 케이스보다 약 2만b/d가 적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2000년까지의 수요를 전망해 보면, 日本型인 휘발유高/中間溜分低의 가격체계에서 需給은 휘발유와 경유 이외의 각 제품에서 상당한 공급부족이 발생하며, 특히 燈油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이 제로(採算性없는 油種이기 때문에)로 생산의욕이 극단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균형이 크게 붕괴될 것

이다.

歐美型인 中間溜分型가격체계하에서는 전제품이 필요 생산량을 충족시키며 2000년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가격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型인 燈油高型체계에서는 휘발유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日本의 가격체계는 현재의 수요패턴과 生産收率이 정제설비능력과 原油性狀을 감안할 때 最適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中間溜分 특히 燈油는 採算性을 도의시한 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장래의 제품수요구조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패턴대로 된다면, 당연히 歐美의 中間溜分型인 가격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歐美型으로의 移行

지난 6월 石油審議會·石油産業基本問題檢討委員會는 「1990年代를 향한 石油産業, 石油政策의 기본방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골자는

현행의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규제를 단계적으로 (5개년) 완화하여 업계의 體質強化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강화책의 하나로서 제품가격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石油市場의 국제화등에 대응하여 국내의 석유수요구조의 차이등을 참작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가격수준에서 석유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精製와 流通각부분을 통하여 철저한 合理化에 의한 원가절감에 노력한다. 또한, 정제설비의 高度化를 통하여 국내 정제의 高附加價値化를 도모하며, 아울러 低附加價値제품의 수입으로의 전환을 더욱 추진함에 따라 경영기반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競争에너지가격과의 균형에도 유의하면서 소비자등 관계자의 이해를 증진하면서 제품가격체계의 국제화에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同보고서는 제품가격체계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국제화를 위하여 어떻게 대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철저한 原油節減으로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가격수준이 확보될 것인가, 低附加價値제품의 수입으로의 전환이라고 해도 日本보다도 싼 제품(휘발유를 제외하고)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고급휘발유가 자취를 감추고 그보다도 비싼 100옥탄價·휘발유의 출현에 따라 日本의 휘발유 가격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어떻게 國際化體系에 접근할 것인가 등은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순조롭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철저한 합리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2000년에는 실제로 燈油를 생산하지 않는 회사가 나올 지도 모른다. 國際化의 추진가운데 규제완화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 이상, 歐美주요국의 동향을 근거로 하면서 日本의 현 석유가격체제도 그 방향으로 서서히 移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JETI, 10月號)

□ Y강좌 □

직장초년생 몸가짐

직장에 첫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은 동료와의 인간관계, 근무중 몸가짐이 미숙하게 마련. 그러나 이 시기 언행은 신입사원 능력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 서울 YWCA(회장 鄭光謨)는 취업 시즌을 맞아 직업여성대학을 개설, 서울 청산여상 등에서 강좌를 가졌다. 이 강좌의 강시중 白貞蘭씨에게 직장 여성의 직업관·직장생활 에티켓을 들어본다.

먼저 직장이란 채용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재능을 사들여서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금전의 형식으로 분배해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곳이라는 기본인식이 필요하다. 즉 직장이란 개인의 공부를 하거나 즐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양립시키는 곳이라는 점을 명심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직업관과 함께 신입사원이 가져야할 근무자세는 다음과 같다.

▲公私의 구별을 분명히 할 것.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구분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행동을 명확히 할 것. 특히 나가고 들어올 때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분명히 구분한다. 시간관념은 성실성 측정기준이 된다. ▲선배의 조언을 구할 것. 어려운 문제해결은 물론 인간관계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지식은 신뢰받는 지름길이다. 회사나 자기업무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도움이 된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일은 물론 회사의 집기에도 애정을 가지며 모든 손님은 나의 손님처럼 대접해야 한다.

직장생활은 새로운 공동생활의 시작. 신입사원은 모든 동료와 사무실분위기가 낮설지만 그를 시험해 보는 눈이 그에게 쏠려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따라서 동료들에게는 인사를 명랑하게 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알려 친밀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끼리 자주 모임을 갖는 것은 삼갈 것. *